

군산시, 수제맥주 도시로 도약

6월 12~14일 내항에서 '2026 군산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개최 '보리 생산부터 맥주까지' 산업 기반으로 로컬 · 관광 콘텐츠 확대

군산시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내항 일원에서 2026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이후 더욱 확대된 규모와 콘텐츠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맥주의 시작은 보리밭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산 보리를 활용한 맥아와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은 보리 생산부터 맥아 가공 수제맥주 제조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갖춘 도시로,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수제맥주 1번지 군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군산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제맥주와 블루스 음악, 항구도시 경관을 결합한 복합 문화 콘텐츠를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지역 음식 · 숙박 · 관광 · 식품 분야 소상공인들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장과 원도심 상권을 연결



군산시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내항 일원에서 '2026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에는 제품 홍보와 브랜드 노출 기회를 제공해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예성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업 · 산업 · 문화 · 관광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산업형 축

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이다.

특히 군산 보리를 활용한 수제맥주의 인지도와 소비를 확대해 지역 농업

의 부가치를 높이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국의 교류도시와의 협력과 글로벌 콘텐츠를 강화해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군산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맥주 도시로 육성

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자원 위기 속 통근버스 도입

정부 에너지 절약 지침 발 맞춰... 모현 · 영등 거점 직원 통근버스 운영

익산시가 최근 국제적인 자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자원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발맞춰 직원 전용 통근버스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먼저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실천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일부터 통근버스를 마련했다.

통근버스 노선은 △1호차(모현 · 송학동) △2호차(영등 · 부송동) 등 2개로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근버스 운영은 시민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대 시정 인근의 교통 체증이 완화되고, 고질적인 청사



주차난이 해소되면서 시정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버스 운행을 통해 수많은 승용차 이용을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노선과 배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 경관개선사업 완료

배수로 범람 문제 해소... 수경시설 조성해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군산시는 위기철마다 반복되던 월명공원 내 배수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월명공원 산책로 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기존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배수로 범람과 시면 토사 유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곳으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자연석을 활용한 돌배수로로 정비하고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위기 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벽천 및 수목 식재를 병행하여 기능성과 경관성을 동시에 강화하였으며, 여름철에는 물소리 및 벽천의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더위를 식히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수경시설은 4월 주말 동안 시범 가동을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마한박물관, 자개로 나만의 소품 만들어요

오늘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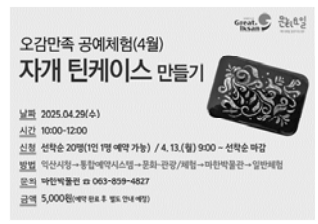
익산시는 마한박물관에서 오는 29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자개 토크이스 만들기'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공예인 나전 칠기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개의 은은한 빛을 활용해 토크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체험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마한박물관 교육체험실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인원은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고, 체험료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마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827)로 문의하면 된다. 마한박물관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공예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7주년 기념식

광복회 전북도지부 주관, 군산선열의 희생기리며 보훈의식 함양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지난 10일 군산시 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군산에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권한 대행)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 · 단

체장,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군산제일고 합창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임시정부 헌장낭독, 역사보고, 기념사 및 축사, 임시정부 관련 영상 상영,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군산 시민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1:1 원어민 초등생

화상영어 교육 본격 시도

군산시는 13일부터 32주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영미권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1:1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사업(이하 화상영어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업은 주 2회, 회당 20분간 1: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교육 접근성의 균형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학생이 양질의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화상영어 사업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사업으로 평가받으며 큰 호응을 얻어왔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군산시는 국가유산 접근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6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되며, 군산의 주요 역사적 명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탐방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탐방 코스는 총 3개로 구성된다. 고군산군도의 자연유산과 지질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선유도 · 산북동 코스,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를 둘러보는 군산 내항 코스, 그리고 전통 교육기관의 정신과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임피향교 코스 등이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 기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30일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또는 문화예술과 부서소식)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보다 많은 기관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참여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은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

익산시는 지방세 환급금 전자 송달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익산시는 종이 우편 대신 스마트 폰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송달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환급 안내문을 종이 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주소지 불일치와 우편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 뒤 위택스나 전화로 즉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카카오톡 알림톡 외에도 위택스 정부24 또는 익산시청 징수과(063-859-55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이리 열차타고 익산행'

5~11월, 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 삼산의원 · 춘포역 등 근대역사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색 체험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익산에서 역사 속으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근대역사 자원을 활용해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생생국가유산사업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박 2일 일정의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과 '독립된 이리에서 씨유 어게인'을 비롯해 당일 프로그램 '춘춘! 뉴트로 감성 소리골 목기행'으로 이뤄졌다.

대표 프로그램인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은 옛 삼산의원 일원에서 △근현대 시대복 체험 △농자개혁 주체 게임형 체험 △토지대장 기록 체험 등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소리근대역사문화공간과 옛 춘포역을 탐방하며 근대도시 이리의 역사와 철도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독립된 이리에서 씨유 어게인'은 소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역사 미션 수행과 어린이 인형극, 거리극 등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된다.

'춘춘! 뉴트로 감성 소리골목기행'은 익산역 철도관사마을과 익옥수리조합, 소리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을 탐방하는



익산시는 근대역사 자원을 활용해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생생국가유산사업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설형 프로그램이다.

익산의 근현대 역사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야기 기반의 미션형 체험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 참여자가 근대 도시 이리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전후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조명해 지역 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887-00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지역 근대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운영해 국가유산형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확대 운영

이차전지에 이어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확대... 실무형 첨단 인재 양성 본격화

군산시는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5년간 총 7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1차년도 114명, 2차년도 132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민금 투자 확대에 대응한 인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월 국립군산대학교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가로 7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이차전지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분야 부트캠프 사업은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설계(Design), 해석(Simulation), 제조(Manufacturing)로 이어지는 제조 전주기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I(AI 전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향후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